

#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프랑스의 노력

한선희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 1. 머리말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 프랑스의 문화 예술 정책 일반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노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절대 왕정에서 비롯된 이 노선은 국가가 주도적 입장에서 문화 예술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 노선은, 한편으로는 모든 검열과 제약의 폐지를 통해 창작과 창조성을 장려하는 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화 예술 정책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려는 민주주의 노선과 때로는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미테랑 대통령 집권하의 대규모 문화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 특유한 공화주의 정신과 결부되어 오늘날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서도 이러한 “중앙 집권적” 노선은 그 중심을 차지한다. 모든 공문서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 1539년의 「빌레르 코트레 칙령(Ordonnance Villers-Cotterêts)」에서, 1635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1) 서정기·이혜숙 공저, 『프랑스 문화와 예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pp. 114-115.

(Académie française)의 창립, 공문서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다시 한번 의무화한 공화국 2년 열월(Thermidor) 2일(1794년 7월 2일)의 법령을 거쳐, 1994년의 「투봉 법(la loi Toubon)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을 위한 노력은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sup>2)</sup> 다른 한편, 19세기 후반 줄 페리(Jules Ferry)에 의해 보통, 평등, 의무 교육이라는 원칙이 확립된 이후,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은 다른 모든 근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에 집중된다.

요컨대, 프랑스에서 자국어의 옹호와 선양을 위한 노력은 법률 및 이를 실행하는 정부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국민들의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교육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 집권적” 노력 외에도 그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는 것이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이다. 우리는 그 예로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두 가지 프랑스어 퀴즈 프로그램을 소개하려 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보이는 자국어 보호와 발전의 노력을 법률 및 제도적 측면, 실제 교육의 측면, 민간 영역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2. 법적, 제도적 장치

### 2.1. 프랑스어의 법적 지위

프랑스는 공화국 내에서 자신들의 국어인 프랑스어가 가진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1992년 6월 25일자 수정 조항(n°92-554)은 헌법 제2조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목적을 밝히는 ‘전문’과 공화국으로서의 프

2) 자국어 옹호를 위한 프랑스인들의 노력의 역사는 Cl. Hagège (1996) *Le Français - Histoire d'un combat*에 잘 정리되어 있다.

랑스의 정체성을 밝히는 제1조에 뒤이어 나오는 제1장 “주권”의 첫 번째 조항인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국민의 상징은 청, 백, 적 삼색기이다.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이다.

공화국의 표어는 “자유, 평등, 박애”이다.

공화국의 원칙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여기서 보듯이 프랑스어는 삼색기, 국가, 공화국의 표어와 원칙보다 앞서 프랑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근본적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당시 문화부 장관이자 법안의 발기인인 자크 투봉의 이름을 따서 「투봉 법(la loi Toubon)」이라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자 n°94-665 법령」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공화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개성과 문화유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환, 공공 업무의 언어이다.

프랑스어는 불어권(francophonie)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을 연결하는 끈이다.

「투봉 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던 「바-로리올 법(la loi Bas-Loriot)」을 강화한 것으로, 공무 수행, 기업 활동, 언론, 광고 등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 및 학술 회의 등 특수한 영역에서도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외국어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어를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특히 프랑스 내에서 점차 지배

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영어(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어)의 일반화 및 영어와 프랑스어의 혼용 현상에 대한 견제를 위한 법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sup>3)</sup>

그런데 이 법안들이 프랑스어의 옹호를 위해 내세우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법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다. 위 두 법률 조문에는 공화국, 시민 사회,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언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공화국의 언어”라는 정의는 프랑스어가 -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국어가 - 본질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사회 통합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다국적 자본이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곧 노동자들에게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명확한 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외국어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만들어 내며, 언어적 불평등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로, 프랑스어를 공화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규정하는 프랑스인들의 태도는 언어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교의 구조 그 자체이며 현실 인식과 성찰의 특수한 양태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세계화”라는 조류,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 확대에 대하여 프랑스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신장하는 것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사회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과 민족의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그들보다 더 심각한 차원에서 영어의 지배권 확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3) “투봉 법”에 관해서는 안근중, 「프랑스의 국어 수호 정책 - 법제화와 그 이면」을 참조하라. (‘안근중’의 글은 원운수 편, 『진정한 세계화의 모색 - 불어권의 경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45-66에 실려 있음.)

## 2.2. 프랑스어 관련 정부 기구

### 2.2.1. 정부 기구의 역사

프랑스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앞서 살펴본 법적인 측면에서의 정비와 함께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공식 기관은 1966년 3월, 조르주 폼피두가 창설한 ‘프랑스어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최고 위원회(Haut Comité pour la défens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였다. 1973년 ‘프랑스어 최고 위원회’로 개칭된 이 기구는 정부 수반인 국무총리 직속으로, 프랑스어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적합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노력들을 장려하며, 민간 영역의 관련 기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1984년, 이 ‘최고 위원회’는 ‘프랑스어 자문 위원회(Comité consultatif à la langue française)’와 ‘프랑스어 총 사무국(Commissariat général à la langue française)’이라는 두 기구로 대체된다. 이 두 기구는 역시 국무 총리 직속으로, ‘자문 위원회’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급, 불어권 및 프랑스 내의 지방어 정책, 외국어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시를 담당하였으며, ‘총 사무국’은 프랑스어의 보급과 신조어 확정 작업에 참여하는 행정 기관, 공공 기구 및 민간 기구들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1989년에는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Conseil sup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와 ‘프랑스어 총 위원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가 위의 두 기구를 대체하게 된다. 이후 내각 구조의 변화에 따라 ‘총 위원회’는 1996년 이후 문화부(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에 소속되고, ‘최고 이사회’는 국무 총리 산하에 남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어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 위원회’ 회장이 주관하며 각 관련 부처의 책임자로

구성된 부처 간 기구의 설립이 예정이다. 한편 ‘총 위원회’는 2001년 10월 16일 법령에 따라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에 관한 총 위원회’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문화 유산의 일부를 이루는 각 지방의 언어(예: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카탈로니아어, 코르시카어, 크레올어, 오크어, 오일어, 사브와어 등)를 프랑스어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호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2.2.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에 관한 총 위원회

1966년 창설된 ‘프랑스어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최고 위원회’의 후신으로, 1996년 이후 문화부 산하에 들어 있는 이 기구는 그 규모 면에서는 30명 미만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량급” 기구인 반면, 실제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 기구는 언어와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 공공 기관, 협회 및 전문가들을 위해 연구, 감시, 조정, 장려, 종합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해외에서 수행하는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업무들을 조직화하고, 불어권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일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임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연구 : 프랑스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 전략의 결정, 미래를 위한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ii) 감시, 조정, 장려 : 각 부처 간의 협력에 기초한 횡적 구성에 따라, 여러 정부 기관의 행동을 조정하고 장려한다.
- (iii) 홍보 :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프랑스어의 현 상황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인식시킨다.
- (iv) 행동 : 위원회 자체가 가진 수단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공공 기관 및 사적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프랑스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행에 옮긴다.
- (v) 관찰과 평가 :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

립하고, 이미 실행에 옮긴 계획들의 유효성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밖에도 ‘총 위원회’는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와 ‘전문 용어 및 신조어 총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2.2.3.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 ‘최고 이사회’는 연구, 자문 및 평가 기관으로, 공화국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한 전체적 방향 안에서 프랑스 국내외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 보존, 정비, 발전, 확산과 관련된 문제 및 외국어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맡고 있다. ‘총 위원회’와는 달리, 이 기구는 행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 기관으로서, 작가, 과학자, 언어학자 등 언어 영역에서 그 전문성이 인정된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는 정책을 제안하고, 취해야 할 행동의 형식을 추천하며, 국무총리 또는 문화부, 교육부, 불어권 담당 장관 등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도 맡게 된다.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불어권 담당 장관, 아카데미 프랑세즈 의장, 과학 아카데미 의장, ‘전문 용어 및 신조어 총 위원회’ 의장 등이 이 ‘최고 이사회’의 중심 구성원을 이루며, 그 외에도 22명의 이사가 여기에 합류한다. 이 기구의 행정 업무는 앞서 소개한 ‘프랑스어 총 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 2.2.4. 전문 용어 및 신조어 총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인 이 위원회는 새로운 전문 용어 및 일상 용어의 창조와 도입을 통해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심을 이룬다. 이 위원회는 전문 용어 및 신조어에 관한 여러 전문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 개별 위원회들과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이의 협력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총 1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4년 임기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종신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 문화부 장관이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4년 임기의 13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진다. ‘총 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되며, 위원들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자체의 고유한 작업 결과를 산출하는 일 외에도, 이 위원회는 매년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행정 기관들이 수행한 업적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프랑스어 총 위원회’에 의해 출판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 최고 이사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 수반이 공식적으로 언어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또한 ‘프랑스어 총 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협력은 제도적으로 보장 받게 된다. 자국어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프랑스의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그 기반이 되는 법적 장치와 함께 우리에게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프랑스어 교육 과정

#### 3.1. 프랑스 교육 제도의 특징

우리는 이 장에서 프랑스 교육부가 제시하는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과 비교하여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간추려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교육 제도의 몇몇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 교육 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들이 출판되고, 교사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프랑스가 자국어 교육 영역에 있어서 자유주의



적이고 개방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상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각종 교과서의 집필은 물론,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교육 역시 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자국어 교육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프랑스의 “중앙 집권적” 관리는 엄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프랑스 교육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특유의 유치원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일반 고등학교 3년으로 구성된다. 즉, 초등학교에서 대학 입학까지 프랑스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2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프랑스에서의 공교육은 만 3세에 입학하는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프랑스적 특성”의 하나인 유치원은, 단지 미취학 아동들을 맡아서 보호하는 “보육 기관”이 아니라, “본격적인 학교(école de plein exercice)”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초등학교는 3년간의 유치원 교육과 5년간의 초등학교(école primaire) 교육을 합한 8년간의 교육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프랑스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연도별 구성이 아니라 단계별 구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 적용된 이 단계별 구성은 학생들의 다양성, 즉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성장 리듬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가지는 동시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목표와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단계별 구성은 특히 초등 교육에서 잘 드러나는데,

- 
- 4) 프랑스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은 프랑스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립 교육 자료 센터(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cndp.f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5) 프랑스 국어 교육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부런,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한국국어교사모임 편, 『함께 여는 국어 교육』, 2000년 봄호, 동일한 저자가 같은 지면에 발표한 「프랑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짜임새와 속살」(2000년 여름호, 38-65면, 2000년 가을호 238-265면),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짜임새와 속살」(2000년 겨울호, 162-184면)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

8년간의 초등 교육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인 “초기 학습 단계(cycle des apprentissages premiers)”는 유치원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이루어지며, 두 번째 단계인 “기본 학습 단계(cycle des apprentissages fondamentaux)”는 유치원 상급반, 초등학교 준비반(Classes préparatoire),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 1반(Classe élémentaire 1)의 3년을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인 “심화 학습 단계(cycle des approfondissements)”는 초등학교 기초 2반(Classe élémentaire 2), 초등학교 중급 1반(Classe moyenne 1), 중급 2반(Classe moyenne 2)의 3년에 해당되며, 이어서 중등 교육으로 넘어간다. 4년간의 중학교 과정 역시, 2학년과 3학년의 과정이 “중심 단계(cycle central)”라는 한 단계로 묶여 세 단계로 구성된다.<sup>6)</sup>

## 3.2. 초등 교육

### 3.2.1. 언어 교육의 비중

프랑스 초등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축은 “언어 능력 및 프랑스어의 습득”과 “국민 교육”이다. 그러나 국민 교육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것이므로, 실제 교육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프랑스어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국어를 전수하는 것이 이 단계 교육의 근본 목표이며,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지식에 접근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초등 교육에서 자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과 시간 배당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초등학교 교육은 주당 26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학습

6) 중등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에 따라 각각 2년씩의 “관찰 단계(cycle d'observation)”와 “진로선택 단계(cycle d'orientation)”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는데 반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통 과목 외에도 “선택 과목”(일반계와 기술계)을 선택하여 듣는다. 프랑스어는 공통 과목으로 그 교육 과정은 1년차, 2-3년차, 4년차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의 경우, “언어 능력 및 프랑스어 습득”은 9시간에서 10시간을 차지하며, “심화 학습 단계”에서도 “프랑스어와 문학 및 인문 교육”이 12시간을 차지한다(여기에는 역사·지리 3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 3.2.2. 교과 과정의 점진적 분화와 “횡적 접근”

그러나 이러한 교과 구분과 시간 배당에 대한 언급은 초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과 과목의 구분은 초등 교육 전반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는 교과 구분도, 이에 따른 시간 분배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초기에 수학, 예술 교육, 체육이 분리되고, 제3단계에 이르면, 문학, 역사·지리, 과학, 기술 등이 분리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문학과 역사·지리는 “프랑스어와 문학 및 인문 교육”이라는 종합적인 과목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교과 과정 분리는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세계 인식에 접근하게 하려는 배려로 풀이될 수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횡적 접근(*approche transversale*)”이라 부른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초등 교육의 근본 목표라고 생각되던 것---즉 말하기, 읽기, 쓰기 및 셈---과 이보다 더 구체적이며 분화된 지식들---예를 들어, 역사, 지리, 과학 등--- 사이에는 절대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이러한 횡적이고 학제적인 교과 과정 구성은 언어 활동을 다른 활동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읽기와 쓰기를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충분한 행위로 간주하는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업 시간에 읽거나 쓰게 되는 텍스트를 그 맥락(컨텍스트, *contexte*)에서 분리시킬 경우,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를 그저 단순한 연습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고, 이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읽기를 예로 들어 볼 때, 역사, 지리, 과학, 때로는 문학 수업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학습은 동일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체제는 초등 교육에서의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국 언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등 교육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3.2.3. 달성 목표

프랑스 교육부의 교과 과정은 한 단계를 마칠 때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초등 교육의 프랑스어 과목에 한정하더라도 각 단계의 달성 목표를 소개하는 것은 거의 책 한 권의 지면을 요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대강만을 제시하려 한다.

유치원에서 언어 교육의 중점은 말하기에 주어진다. 문자 언어의 습득은 이 단계의 주요 목표가 아니며,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읽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주요 목표이다. 제2단계가 끝날 무렵이면, 학생들은 간단한 텍스트를 자유롭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 교육은 제3단계에서도 계속된다. 학생들은 픽션, 이야기, 역사 문헌, 지리적 설명, 과학 실험 보고서 등 점차로 더 길고 다양하고 복잡한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쓰기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준비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2단계를 마칠 무렵, 학생들은 어휘, 문법, 통사 구조, 철자법에 맞게 5줄 내지 10줄 가량의 작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단계에서 학생들은 이야기, 시,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보고서, 실험 관찰 보고서, 계획서, 짧은 시나리오 등 다양한 영역에 속하는 텍스트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한다.<sup>7)</sup>

## 3.3. 중학교(collège) 교육

### 3.3.1. 프랑스어 교육의 기본 목표 및 비중

중학교 교육은 프랑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으로는 최종

7)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u ministère de la Recherche』. Hors série n° 1 du 14 février 2002.

단계이다.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그리고 이미 졸업 이전에도, 학생들의 진로가 갈리고 그들이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게 되거나 사회 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각자가 자신의 인성을 형성하고, 의식을 갖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학생들은 중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통해 그들의 판단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줄 알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공통적 기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기본적인 담론(discours) 형태들에 대한 자유로운 구사”라는 주제로 구체화된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주당 26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중등 교육에 있어서 프랑스어 과목이 차지하는 시간은 4~5시간이다. 이는 주당 9시간 이상이 언어 능력 및 프랑스어에 할애되는 초등 교육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등 교육에서는 교과 과정의 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한 편으로 중등 교육에서도 여러 교과에 대한 “횡적 접근”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등 교육에서도 프랑스어 영역의 비중은 그다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3.3.2. 달성 목표

중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과정에 새로운 목표로 추가된 “담론”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횡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전의 교육 과정은 “언어 능력의 습득”, “교양 형성”, “방법론의 습득”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교육 과정은 거기에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추가하는데, 이는 바로 “담론의 능숙한 구사(maîtrise des discours)”이다. 여기서 “담론”이란 “글로 쓰인 혹은 말로 표현된 의사소통 행위 안에서의 모든 언어 사용 능력”을 말한다.

여러 형태의 “담론”은 “서술적(narratif) 담론”과 “논증적(argumentatif) 담론”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중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은 담론의 이러한 두 축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그 다양한 실제적 형태를 연습하고 자유롭게 구사하

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읽기 교육은 특히 역사 과목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진행된다. 프랑스어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에서는 그 자체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담론의 구사라는 목표 아래 종속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프랑스어 학습은 의사소통의 실제 행위와 관련된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담론”의 개념은 여러 교과 과정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문법,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 분석, 컴퓨터 교육, 역사, 지리, 공민 교육 등 서로 다른 과목들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내용들은 모두 “담론”의 형태로 제시되고 학습되기 때문이다.<sup>8)</sup>

### 3.4. 고등학교(lycée) 교육

#### 3.4.1. 기본 목표

고등학교<sup>9)</sup>에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주당 5시간을 차지한다. 이 단계에서 프랑스어의 교육은 지식 습득, 교양 형성, 인성 형성 및 시민 형성이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언어 능력의 습득, 문학적 지식, 문화의 주체적 습득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가지며, 중학교 교육의 연장선 위에 있지만, 그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더욱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그들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학문 연구에서 더욱 자율적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4.2. 구체적 목표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프랑스어 교육은 “사유의 형성”과 “지식의 습득”이라

8)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u ministère de la Recherche』. Hors série n° 10 du 15 octobre 1998.

9) 여기서 우리는 실업계 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를 제외한 일반 및 기술 고등학교(lycée général ou technologique)만을 대상으로 다룬다.

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 습득”에서 주 대상이 되는 것은 텍스트와 언어이다.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는 교양 형성과 문학적 지식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행하는 프랑스어 교육은 텍스트, 특히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와 현재의 주요 작품들을 읽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증대하며, 공동의 문화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한편, 언어의 능숙한 구사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사유 형성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언어는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학생들은 글로 쓰는 행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주된 “담론” 형태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문법적, 언어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텍스트와 언어라는 두 대상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는 문학사 및 문화사,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표현하는 여러 감정의 영역, 텍스트의 의미와 독창성, 담론이 가지는 논증 구조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공부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판단력과 비판 정신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up>10)</sup>

#### 4. 민간 영역의 노력 : 두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예

##### 4.1. 「숫자와 글자(Des Chiffres et des Lettres)」

1965년, 프랑스 방송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아르망 자모(Armand Jammot)는 「가장 긴 단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1972년 이 프로그램은 「숫자와 글자」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다. 「숫자와 글자」는 프랑스 텔레

10)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u ministère de la Recherche』, n° 28 du 12 juillet 2001.

비전의 오락 프로그램 중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록은 쉽사리 깨어질 것 같지 않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대상 국영 방송인 “프랑스 2” 채널(우리 나라의 KBS 1에 해당)에서 매일 오후 방송되고 있는데, 전성기에는 매회 700만 명의 시청자를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불러모으기도 했다. 시청률의 측면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은 전성기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전국 결선은 1200만 명의 시청자를 동원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국 각지는 물론, 외국에까지 수백 개의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다.

두 경쟁자의 계산 능력 및 어휘력 대결이라는 틀을 가진 이 게임의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다.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6개의 숫자를 사칙연산으로 결합하여(그 숫자 6개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주어진 다른 숫자, 또는 그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45초 내에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3, 6, 5, 7, 9, 10이라는 숫자와 853이라는 숫자가 제시된 경우,  $6+3=9$ ,  $9\times 9=81$ ,  $81+5=86$ ,  $86\times 10=860$ ,  $860-7=853$ 이라는 정답을 찾아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정답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아낸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글자”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경쟁자가 거의 동일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로 승패는 경쟁자의 어휘와 철자법 능력을 묻는 이 부분에서 결정된다. 두 명의 경쟁자는 번갈아 가면서 자음과 모음의 두 범주 중 원하는 하나씩을 선택하고, 컴퓨터는 그에 따라 글자를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된 9개의 문자를 조합하여 30초 내에 “가장 긴 단어”를 찾아내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S, A, T, E, P, I, L, U, Q라는 글자가 제시된 경우, 이 글자를 이용하여 PLASTIQUE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내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sup>11)</sup> 그러나, 모든 글자를 이용하여 단어를 조합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B, A, D, A, D, U, G, I, R이라는 글자가 제시된 경우, 만들 수 있는 가

11) 이 장에서 사용된 예들은 모두 실제 경기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 동호인들의 사이트인 <http://www.chez.com/cybercl/>에 실려 있다.



장 긴 단어는 AIRBAG, BADAUD, RIBAUD라는 세 단어뿐이고, 결국 9개의 글자 중에 6개만이 사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차분한 분위기이다. 여기에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음향 효과도, 관객들의 웃음이나 환호성도, 적극적인 응원도 없다. 다만 출연자들의 정신 집중을 돕기 위해 잔잔한 음악이 흐를 뿐이다. 요컨대, 퀴즈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적 오락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인 분위기를 조성은 찾아 볼 수 없다. 내용 면에서 단순하고 그 외형에 있어서도 소박한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거의 전적으로 출연자들과 함께 자신의 어휘 능력을 테스트하기를 즐기는 시청자들의 관심에 의존한다. 즉, 언어 놀이가 주는 재미가 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의 근원인 셈이다.

#### 4.2. 「황금 사전 (Les Dicos d'or)」

「숫자와 글자」가 애초부터 텔레비전을 위한 정규 오락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데 반해, 「황금 사전」은 정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아니며 매년 열리는 전국 철자법 대회를 중계 방송하는 것이다. 「아포스트로프(Apostrophe)」, 「부이용 드 쿨튀르(Bouillon de culture)」 등 유명한 텔레비전 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으며, “독서의 교황”이라 불릴 정도로 프랑스 문화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베르나르 피보<sup>12)</sup>는 1985년 「프랑스 철자법 경시 대회(Championnat de France d'orthographe)」를 개최한다. 그의 시도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어 이미 첫 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제2회 대회부터 전국 결선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된다. 1988년, 이 대회가 가진 교육적 효과를 이해한 프랑스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생부 대회가 덧붙여지고 그 예선은 각급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서 이루어진다. 같은 해에 「프랑스어 철

12) 베르나르 피보(Bernard Pivot)에 관해서는 서정기, 이해숙 공저, 앞의 책, pp. 261-264 참조.

자법 세계 대회도 시작된다. 1993년 「철자법 대회」는 「황금 사전」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 해부터 프랑스의 또 다른 국영 방송인 “프랑스 3” 채널(우리 나라의 KBS 2에 해당)이 대회의 공식 파트너로서 지역 예선과 전국 결선을 중계 방송하게 된다. 1998년 이후, 대략 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생부 대회에 참가하며, 사전 테스트와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일부 지역 결선에 참가하는 사람만도 1만5천 명에 이른다. 또한 텔레비전으로 실황 중계되는 전국 결선은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철자법 대회」라는 옛 제목이 드러내듯이 이 대회는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받아쓰기 대회이다. 2002년 1월 15일 진행된 2001년 대회 결선을 예로 들자면, 진행자 베르나르 피보가 10줄도 안 되는 문단 두 개(하나는 청소년 참가자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 대상)를 읽고 참가자들은 그것을 받아쓰는 것이 이 대회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시험은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다. 여러 단계의 예선을 거쳐 전국 결선에 진출한 150명에 달하는 참가자들 중에서 만점을 맞은 사람은 없다. 성인 전문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도 1.5개의 실수를 범했다.

어휘력뿐만 아니라, 문법, 발음 등 언어의 여러 영역의 지식을 총괄적으로 묻는 받아쓰기는 전통적으로 프랑스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그 시험이 본질적으로 가진 어려움 때문에 받아쓰기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다. 피보가 요약하듯이 “불필요한 연습,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식, 서기들이나 하는 작업, 나아가서는 고문 도구”라는 것이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 눈에 비친 받아쓰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피보는 그가 가진 “받아쓰기에 대한 기분 좋은 기억”과 자신도 받아쓰기를 시키는 교사들처럼 “뒤통을 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렸을 때의 욕망을 바탕으로, 받아쓰기가 내포하는 그 “미묘한 유희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유행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재미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피보의 이러한 과감한 시도가 얻은 성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언어가 가진 유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정확했던 것이다.

### 4.3. 교육과 놀이의 결합

외형적으로는 오락 프로그램의 자극적인 면모를 거의 가지지 않은 이 두 프로그램의 성공은 언어 퀴즈가 가진 본래적인 유희성에서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황금 사전」의 문제는 출제된 문제 자체의 유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에서 문장 내 화자는 “접속법 반과거(l'imparfait du subjonctif)” 시제를 자신의 골치를 썩이는 어려운 문제의 한 예로 들고 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그 문장 내에 이 시제가 제시된다는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된 아이러니로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에게는 미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성년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단의 “Puis-je être piquée...”라는 문장에서 “piquée”라는 과거분사의 일치 문제는 피보가 언급한 “덧”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문장까지는 “je”로 표현되는 화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으며, 출제자의 발음만으로는 이 과거 분사의 성·수는 구별될 수 없다. 그 다음 문장에서야 화자는 “내 남편(mon époux)”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여성임을 밝힌다. 따라서 문제 전체를 주의 깊게 듣고 논리적 사고를 할 때만, 오류를, 즉 “덧”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피보가 고백한 “덧을 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덧”을 피하는 데서 느끼는 쾌감이 행복한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놀이꾼들일까? 가서 알아보라! (Sommes-nous tous des joueurs ? Allez savoir !)”라는 문제의 마지막 문장은 이 프로그램의 유희성을 훌륭하게 요약한다.

오늘날 프랑스 교육, 특히 언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육과 재미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그 대체적 윤곽을 살펴본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보면, 유치원에서의 언어 교육의 많은 부분은 리듬 놀이, 운율 놀이 등 언어 놀이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이후의 철자법 교육에 있어서도, 창작 활동을 통한 교육과 “동기를 부여하는 유희 상황” 내에서의 받아쓰기 교육 등 놀이의

성격을 강조하는 방법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sup>13)</sup> 이러한 경향은 놀이가 가지는 교육 효과를 증명하는 예이며, 우리가 소개한 두 프로그램은 학생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국어 능력을 고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5. 맺음말

프랑스에서 자국어의 지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적 조치는 일련의 정부 기구에 의해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개발된 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자국어 옹호와 선양을 위한 민간 영역에서의 많은 노력이 존재한다. 우리가 소개한 두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이 정부의 협력에 의해 훌륭한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프랑스어의 광휘(*le rayonn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이는 자국어에 애착을 가지는 많은 프랑스인들의 말과 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그 “광휘”는 쉽게 생겨나는 것도 쉽게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말로 빛을 창조할 수 있는 이는 신 밖에 없다. 그것은 “언어의 빛”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 단체 또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 힘과 의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법적·제도적 정비, 민간 영역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의 결합, 그리고 언어가 가진 유희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재미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고양하고 우리말의 “광휘”를 옹호하며 선양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13) Véronique Lavergne. *Apprentissage de l'orthographe : une nécessaire prise en compte des représentations des élèves*. Académie de Montpellier. 2000.

## 참 고 문 헌

- 서정기, 이해숙(2002). 『프랑스 문화와 예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안근중(2000). 「프랑스의 국어 수호 정책 - 법제화와 그 이면」. 『진정한 세계화의 모색 : 불어권의 경우』.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부련(2000).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한국국어교사모임 편. 『함께 여는 국어 교육』 2000년 봄호. 전국국어교사 모임.
- 이부련(2000). 「프랑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짜임새와 속살」. 한국국어교사모임 편. 『함께 여는 국어 교육』 2000년 여름호, 가을호. 전국국어교사 모임.
- 이부련(2000).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짜임새와 속살」. 한국국어교사모임 편. 『함께 여는 국어 교육』. 2000년 겨울호. 전국국어교사 모임.
- 장소원(1993). 「프랑스의 언어 정책」. 『세계의 언어 정책』. 서울 : 태학사
- Cerquiglini, B. et ali.(2000). *Tu parles!/? Le français dans tous ses états*. Paris : Flammarion.
- Hagège, Cl.(1996). *Le français : Histoire d'un combat*. Paris :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 Jaffre, J.-P.(1992). *Didactique de l'orthographe*. Paris : Hachette.
- Lahire, B.(1993). *Culture écrite et inégalités scolaires. sociologie de l'échec scolaire à l'école primaire*. Lyon : Presse Universitaire de Lyon.
- Lavergne, V.(2000). *Apprentissage de l'orthographe : une nécessaire prise en compte des représentation des élèves*. Montpellier : Académie de Montpellier.
- Sampson, Rodney éd.(1993). *Authority and the French Language*.

Münster : Nodus Publikationen.

*Bulletin Officiel du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u ministère de  
la Recherche.*

프랑스 교육부 <http://www.education.gouv.fr/>

프랑스 국립 교육 자료 센터 <http://www.cndp.fr/>

아카데미 프랑세즈 <http://www.academie-francaise.fr/>

「황금 사전」 <http://www.dicosdor.com/>

「숫자와 글자」 <http://www.chez.com/cybercl/>